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임금 개편 작업 착수

‘신의 직장’ 성과급 등 대수술

금융공기업 조정 불가피...기관장 연봉 엄격관리 표준안도 확정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감사·직원 등에 대한 임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해의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했으며 현재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국내 공기기업들의 임금실태도 정밀하게 조사한 뒤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 개편된다=기획처는 현재 외국 공공기관들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임금 개편 작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기획처는 무엇보다도 금융공기업들의 임금문제에 대해 적지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깎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공기업의 임금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들이 다른 공기기업들의 임금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기 때

문이다. 올해에는 정부가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에 개입하기 어렵다. 현재 금융공기업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금융공기업들이 준정부기관에 편입되면 정부의 임금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기관장 연봉 엄격 관리=기획처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임기만으로 사임연도 중 퇴임하면 성과급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나온 후에 지급되도록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최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센티브 상여금이 기업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을 하는 해의 경영실적 인센티브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 다음 연도 6월 이후가 아니라 퇴직과 함께 곧바로 지급되면서 상여금 지급액은 해당연도가 아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 계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경영실적 저조 또는 법령 위반으로 해임되는 경우, 해당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50% 감액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 안하면 급여에 부정적 =공공기관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려면 서비스 개선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혁신평가(100점 만점)를 할 때 서비스개선 평가의 비중을 기존의 2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장 평가 등에서도 서비스개선 여부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받게 되고 이는 기관장과 직원들의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들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2007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실시할 때부터 이런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골든로즈호 사고 현장 중 영해인가”

정부, 우디웨이 외교부부장에 협의 제안...시신 1구 추가 인양

조종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4일 “중국 측에 골든로즈호 사고 현장이 중국 영해인지 여부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회의의 일정을 마친 뒤 23일 베이징(北京)에 들러 우디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우 부장은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후 조치 등이 모두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앞서 중국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 12일 수색 및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해 사고 해역이 영

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지만, 한국 정부는 현장이 중국 본토나 섬 등에서 최소 38해리 떨어져 있어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부장은 골든로즈호 침몰이 인위적이거나 고의적인 사고는 아니었다면서 선원을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한편 골든로즈호 사고 대책반 관계자는 중국 민간 구조업체 잠수팀이 이날 오후 12시 45분(현지시간) 입수,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을 벌여 지난 22일 발견 후 기상악화로 인양에 실패한 시신 1구를 인양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현장과 시각

국회에 김홍업 의원은 없다



김동욱

서울취재 팀장

지난 4·25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김홍업 민주당 의원(무안·신안)이 여의도에 입성한 지 꼭 한 달이 됐다.



김홍업

국회의원

김 의원은 보궐선거 승리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국회의원 김홍업으로 봐달라”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상임위도 무안·신안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듯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정했다. 그러나 김홍업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국회 의원회관 4층에 마련돼 있는 그의 사무실은 대부분 문이 잠겨 있거나 일부 보좌직원만 간헐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부재에 대해 보좌진은 “김 의원이 당선 인사 때문에 의원회관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생이 많은 신안군의 특성상, 당선 인사가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김 의원에게 전화를 해 근황을 취재하려 했지만 이도 힘든 상황이다. 보좌진이 전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보좌진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김 의원이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이라서 그런지 당 대표보다 통화가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김 의원은 최근 한 달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기자들을 피하며 당선 인사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김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현안은 물론 정국 상황에 대한 어떠한 입장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5월 한 달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은 데다 정치인이기 앞서 김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민감한 시기에 말을 아껴야 하는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내성적인 성격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당선 인사에 주력한 김 의원의 의정 활동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후광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성실한 의정 활동도 미래가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만이 김 의원이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진 마음의 빛을 밝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tuim@kwangju.co.kr

北 ‘2·13합의’ 이행해야 쌀 보내

정부, 대북 식량차관 잠정 보류키로

29일 서울 남북장관급회담 진통 예상

정부는 이날 말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던 대북 식량차관 수송을 북핵 ‘2·13 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무리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남북관계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쌀 40만 톤 규모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시기와 관련, “지난달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2·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정부가 제13차 경협위에서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2·13합의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쌀 차관 제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쌀 차관 제공에 필수적인 절차인 쌀 구매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이 예초 5월 말로 합의했던 첫 선박의 출항시기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쌀을 실은 첫 선박은 일단 출항시키되, 그 후의 물량에 대한 북

송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관련국 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15일 쌀 차관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키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발표시켰다.

정부는 또 25일께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방문해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측의 정부 당국자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쌀 차관 제공 상황에 문의해 온 적은 있지만 제공 자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재규 前 중정부장 추도식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24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삼성공원묘지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27주기 추도식을 열었다. 추도비에 쓰인 '의사'와 '장군' 글자는 지난 1996년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다.

“서래마을 영아 살해범 남편, 범행 개입안해”

프랑스 정신분석전문가, 6개월간 조사 ‘진실한 사람’ 결론

서울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의 범인 베로니크 쿠르조의 남편 장-루이 쿠르조가 자신의 주장대로 아내의 범행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정신 분석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등 4명이, 공모 혐의를 받는 장-루이 쿠르조를 상대로 6개월간 조사한 뒤 ‘진실한, 신뢰할 수 있는, 조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

수사관사에게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또 장-루이에게 편집증이 없고 그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정말로 몰랐던 것으로 평가했다.

범인 베로니크와 관련해 전문가 중 일부는 ‘절저한 거짓말쟁이’로 평가했으나 나머지 전문가들은 ‘임신 뒤 임신을 부인하는 정신상태에 빠졌었다’고 진단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O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투 최호 일본 구제 명터남
  - 당상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분좋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힙합의 품격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 금남지하상가 O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겐도, 프린세스, 슈가룬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TV나 PC Monitor에 연결, 언제나 쉽고 빠르게~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 ✓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방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자!
- ✓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 ✓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 빠른 선행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펙트 AMS]

◆ **은상수상작 학생 조소현** (13세, 00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겠지” 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 **은상수상작 학생 신지영** (16세, 00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발음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부러워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 등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어있어 저희 부녀는 매일 말씀에 틀어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겠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